



그레그 헌트 경 MP

보건부 장관

스튜어트 로버트 경 MP

국립장애보장제도 장관

정부 서비스 장관

알란 터지 경 MP

인구 시 및 도시 기반시설 장관

이민 시민권 이민자 서비스 및 다문화 업무 장관 대행

연합 미디어 보도

2020 년 7 월 2 일

아랍어, 간체 및 번체 중국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가능한 COVIDSafe 앱

COVIDSafe 앱은 더 많은 호주 거주자들이 이 앱을 자신 있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다섯개의 추가적 언어로 운영되도록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이 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내일 7 월 3 일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호주의 다문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들 중 다섯 개 언어가 추가될 것이라고 그레그 헌트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랍어, 광둥어, 만다린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백오십만 이상의 호주인들이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헌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문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의 일부로서 저희는 또한 안내자료들과 포스터를 63 개 언어들로 번역했고 빅토리아주의 900 번 이상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다문화 지역사회들 및 지도자들과 5200 번 이상의 업무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앱에 계속해서 추가 언어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출시에서 사안들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 서비스 장관은 COVIDSafe 앱의 최신 업데이트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장관은 ‘이것은 이 앱의 여섯번째 업데이트이며 사안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COVIDSafe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이런 개선점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민 시민권 이민자 서비스 및 다문화 업무 장관 대행, 알란 터지 의원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호주인들이 그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지 장관은 ‘메세지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 지역사회가 놀라운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호주인들처럼 다문화 지역사회도 역할 담당을 하여 확산 곡선이 완화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호주의 대처가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육백 오십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 받고 등록하였으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더 퍼지는 것을 조속히 막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OVID-19 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보건 당국의 신속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호주인들이 COVIDSafe 앱을 다운로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끝-

미디어 연락처:

헌트 장관실: 제임스 페린- 0447 534 427

로버트 장관실: 리암 존스- 0448 763 351

터지 장관실: 휘트니 해리스- 0466 462 511

빅토리아주 섬머빌, 호주 자유당, 그레그 헌트 MP 가 승인했습니다.